



# 세계적 만화·애니 축제의 바다에 '풍덩'

국내 최대의 만화애니메이션 축제인 '제8회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 2004'가 8월 4일 오후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개막식을 갖고 일주일간의 화려한 장을 펼쳤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SICAF는 애니메이션 영화제 애니마시아, 만화·애니메이션 전시회인 툰파크, 산업마켓 SPP(SICAF Promotion Plan)로 구성됐으며,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홀과 메가박스, 시청앞 서울광장 등에서 성황리에 이뤄졌다.

글 권경희 기자 / 사진 이해성 기자

국내 최대의 만화애니메이션 축제인 '제8회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이 10일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성황리에 폐막했다.

지난 8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17개국 70여명의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해외인사가 내방했으며 총 32만명의 관람객이 방문,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규모의 만화애니메이션 축제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지막날 열린 폐막식에서는 지난 7월 발표된 SICAF 코믹 어워드와 SICAF 애니메이션 어워드 시상식이 열렸으며 하이라이트 행사로 SICAF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애니마시아 어워드 시상식도 동시에 진행됐다. 지난해(41개국 668편)에 비해 크게 늘

어난 49개국 812편이 출품된 애니마시아 어워드 시상식에서는 ▲장편- 벨슨 신 감독의 '왕후 심청' ▲단편- 마크 크레이스트 감독의 '별빛 속의 조조' ▲인터넷 애니메이션 부문- 박형민 감독의 '삶' 등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SICAF 조직위는 이번 행사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8월 말까지 부산과 대구를 순회하며 만화애니메이션 시사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결합된 한여름의 행복한 축제 SICAF는 각종 전시행사와 애니메이션 영화제, 관람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해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매력을 흠뻑 전해줬다.





### 개막식 훨씬 전부터 길게 줄 선 입장객

제8회 SICAF는 심상기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박세형 총감독, 김수정, 박재동, 이희재 씨 등의 유명 만화가, 관련업체 대표 등이 오전 10시 개막선언과 함께 입장객들에게 만화책과 완구 등의 기념품을 나눠주면서 공식적인 막을 올렸다.

개막식 훨씬 전인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던 관람객들은 손에 선물을 받아들이고 함박웃음을 지으면서 전시장으로 들어섰다. 맨 앞줄에 있던 한 관람객은 “지난해 첫 번째 입장을 노렸지만 실패해서 올해만큼은 꼭 첫 번째로 들어가고 싶어 일찍 왔는데도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어 놀랐다”면서 “평소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 SICAF 기간 동안 전시행사와 영화제, 시민광장 행사 등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인기만화가 김수정씨는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모두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SICAF가 있어 일반인의 관심을 만화와 애니메이션으로 불러모으는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가능성 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미래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SICAF가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김수정씨는 또한 올해로 8회째를 맞는 SICAF에 대해 “SICAF 자체가 여러 가지 긍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캐릭터페어를 비롯한 유사한 행사들에 의해 관객들의 시선이 분산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유사한 관련 행사들의 통합이나 재집결의 문제가 조심스레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전시회장 안은 그야말로 세계의 모든 만화가 모이는 ‘만화의 바다’ 다운 모습이었다.



지난해 ‘SICAF 어워드’ 공로상 수상자인 고우영 화백을 재조명하는 ‘고우영 특별전’, 70~80년대 어린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에게 추억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클로버문고의 향수전’을 비롯해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 수상작을 모아 전시해놓은 ‘FIBD 특별전’, 9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소개되어온 유럽만화를 한자리에 모은 ‘EU BEST 앨범전’, 독특한 개성과 뛰어난 완성도로 일본의 대표적 제작업체로 인정받고 있는 ‘프리디션 I.G’의 특별전 등 세계적으로 이름난 만화·애니메이션 제작업체와 수상작들의 전시가 함께 이뤄졌다. 여기에 더해 올해 처음 참여한 일본 문화청의 ‘일본 문화청 미디어 예술제 특별전’과 ‘상해 애니메이션 필름 스튜디오’는 SICAF가 진정한 국제만화애니메이션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자리이기도 했다.

### 추억의 향수를 불러일으킨 ‘클로버문고의 향수전’

일본 문화청 ‘아베 요시히사’ 씨와 ‘자오징위’ 상해 국제애니메이션카툰페어 사무국장은 올해 처음 참여하는 SICAF 행사의 열기에 감탄하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일본·중국 간의 만화, 애니메이션 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공통적으로 나타냈다. 기업들과 함께 참여한 대학과 동호인들의 부스 또한 많은 인기를 끌었다. 비록 규모면에서는 기업들의 부스보다 못했지만, 그 화려함과 다양함, 순수한 열정에 더해 관람객들의 캐리커처를 즉석에서 그려주는 등 적극적인 모습에 전시장마다 주욱 늘어선 줄을 구경할 수 있었다.

한편 개막일 오후 5시 30분에는 올해 SICAF 개막작으로 선정된 ‘개구리의 예언’ 상영과 함께 SICAF 국제애니메이션 영화제



인 ‘애니아시아(Animasia)’가 공식적인 개막을 알리면서 SICAF의 본격적인 장이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은 물론 그동안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세계 애니메이션 작품을 발굴, 초청해 애니메이션의 현재와 미래를 제시하고자 마련된 애니아시아는 8월 10일까지 공식경쟁부문 116편의 작품과 특별초청 프로그램 250여 편이 상영됐다.

### 올 애니아시아 개막작으로 선정된 ‘개구리의 예언’

특히 개막작으로 선정된 ‘개구리의 예언’과 오시이 마모투의 공각기동대 후속작 ‘이노센스’, 올해 칸국제영화제에 소개돼 화제를 불러일으킨 독일의 ‘가야로의 귀환’, 퍼펙트블루, 천년여우 등으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콘 사토시 감독의 신작 ‘도쿄 갓파더스’, 독특하고 놀라운 기법의 종이 애니메이션 ‘케이트 - 말괄량이 길들이기’ 등은 애니메이션 팬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작품으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올해에는 인터넷을 통해 경쟁부문관, 초청부문관을 포함, 인터넷 애니메이션관(<http://sicaf.cine21.co.kr>)까지 모든 작품을 무료로 상영해 네티즌들의 뜨거운 호응을 자아냈다.

인터넷 무료상영과 함께 또 다른 관심이 집중된 곳은 야외무료 상영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가 벌어진 시청 앞 시민광장이다. ‘SICAF 스페셜이벤트’로 이름 붙여진 이 행사는 SICAF 조직위가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저녁에는 ‘애니메이션 야외상영회’가 낮에는 만화애니메이션의 상상력이 가득한 각종 이벤트가 풍부하게 펼쳐졌다.

### 비 속에서도 높은 호응도 보인 서울시청앞 상영회장

개막일인 8월 4일 저녁 8시부터 매일 열린 무료상영회에 이어 8일 저녁 8시에는 음악과 만화가 만나는 카툰콘서트 등의 행사



가 벌어졌다. 이날 저녁 시민광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은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애니메이션의 매력에 흠뻑 빠진 모습이었다. 비록 간간히 비가 내리는 관계로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가족끼리 연인끼리 시민광장에 자리를 펴고 대형스크린을 주시하면서 함께 환호하는 모습은 축제의 모습 그 자체였다.

흔치않은 기회라 생각하고 멀리에서 아이들과 함께 왔다는 한 관람객은 “아이들을 위해 왔는데 막상 와보니 더위도 쫓고 대형스크린에서 영화를 감상하니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애니메이션 상영만 하는줄 알았는데 다른 이벤트도 많이 있다는 걸 듣고 내일부터는 좀 더 일찍 나와 다양한 이벤트들을 즐길 생각”이라고 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행복한 만남, 제8회 SICAF는 8월 10일 폐막식 때까지 서울 지역 곳곳을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천국으로 만들어준 행사였다.

### 치열한 경쟁 통해 수상작 발표

이번 행사에는 ‘왕후 심청’이 SICAF 영화제의 장편부문 그랑프리를 차지했다. 벨슨신 감독의 ‘왕후 심청’은 본선에 오른 5편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가운데 그랑프리에 선정됐다. 레나르트 크라빙겔 감독의 독일 3D 장편 애니메이션 ‘가야로의 귀환’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왕후 심청’은 한국 고전 ‘심청전’을 애니메이션으로 잘 적용해 국내 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기대를 모는 작품이라는 평가. 특히 음악과의 조화, 한국적인 이미지의 캐릭터가 많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크레이스트 감독의 ‘별빛 속의 조조’는 단편부문 그랑프리에 올랐다. 45개국에서 663편이 접수돼 35편이 본선에 오른 단편 부문은 가장 경쟁이 치열했다. 단편부문 우수상에는 미셸



르미의 감독의 '폭풍의 밤'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아시아 코리아 프라이즈에는 파르길 비트리히 감독의 '패스트 필름', 스페셜 멘션 포 데뷔 프라이즈에는 니콜라스 로시 감독의 '궁지에 몰린 로이드'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 특별상으로 정민영 감독의 '길'과 필립 그라마티코폴로 감독의 '감시자'가 선정됐다.

또한 단편 부문 신인상과 관객상에 김진만 감독의 '불록이 이야기'가 선정, ANIMASIA 수상자 중 유일하게 2관왕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애니메이션 TV 시리즈와 광고, 뮤직비디오 등 흥미로운 소재의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소개된 TV&커미션드 부문에서는 피에르 코팽감독의 '팻 & 스텐리'가 TV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신선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는 평을 받은 홍석화 감독의 '잉글리쉬 쇼'와 고블랭 학생팀의 '간식시간'이 커미션드 부문의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 특별상에 프랑수와 루 감독의 '블루스 스토리'가 선정돼 프랑스의 애니메이션이 강세를 보였다. 장편, 단편, TV & 커미션드, 인터넷 애니메이션을 아우르는 총 14개 부문의 시상을 끝으로 SICAF 2004는 폐막을 알렸다.

### 산업적 측면에서 아쉬움 컸던 SICAF

올해 SICAF는 코엑스 태평양홀과 메가박스, 서울광장 등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17개국에서 70여명의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해외인사가 초청됐고 약 32만명이 시카프를 찾는 등 국제 규모의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하지만 8월 10일 막을 내린 제8회 SICAF는 기대했던 것만큼이나 아쉬움도 많이 남는 행사였다. 온오프라인 전시 관람객 20만명을 비롯해 영화제 3만5,000명, 시청앞 및 서울광장 이벤트



4만5,000명 등 총 32만명의 관람객(주최 측 추산)이 다녀간 이번 행사는 누가 뭐라 해도 국내 최대의 만화애니메이션 축제였다. 하지만 8살이 된 SICAF는 올해도 '즐거움 축제'와 '산업 육성의 장'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홍보하면서 국내 유일의 만화애니메이션 산업마켓인 SPP(SICAF Promotion Plan)를 강조했다. 볼거리 위주의 행사라는 비난을 떨치고 '즐거움'과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공언했다.

결과는 이번에도 신통치 않았다. 국내외 투자자와 배급사, 관련 상품 제조사들이 대거 참여할 것이라는 주최 측의 설명과 달리 투자설명회는 썰렁했다. 오후 한때는 5명만 덩그러니 앉아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시장 안에 마련된 B2B 부스 역시 썰렁하기는 마찬가지. 잘못 들어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꼬마들만 간간이 눈에 띄어 있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국내외 초청 바이어의 명단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도 없었다. B2C 위주의 행사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사실 '즐거움 축제'로 행사 방향을 정한다면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업체들에게 '행사에 참가하면 사업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물론 SICAF의 역사가 아직 짧고 특히 SPP가 불과 3년 전에도 도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은 격려하고 지켜 볼 시기이지만 열정만으로 살아가기에는 힘든 문화산업 종사자들이 SICAF와 같은 대형 행사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좀 더 참가 업체들에게 성과가 있는 SICAF가 되도록 2005년 행사에 세심한 준비가 요구된다. 